

17.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할 것인가? How Will We Discipline Them?

스탄(Stan)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허리띠로 때린 일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혼낼 때에는 손 이외에 어떤 다른 물건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성경에 ‘매를 아끼면’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기에, 스탠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근심히 징계하였다(잠13:24).’ 그는 손을 이용해서 체벌했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아이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지 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버릇없이 행동할 때에도, 어머니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늘 말해주셨기에, 베스(Beth)는 자녀들을 어느 누구도 때릴 수 없게 하리라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녀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금 부부로서 스탠과 베스는 어린 자녀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랐던 가족 환경의 차이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탠과 베스는 자라온 가족이나 교회가 달랐지만, 그들을 돕는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지금 해외 사역을 계획 하느라 자녀 양육 문제를 뒤로 할 수 있어서 일단 안심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들이 없어진 것인가? 다시 같은 문제들이 후에 또 발생되지 않을까?

다른 문화

『움겨 다니는 가족들』(Families on the Move) 에서 마리온 넬(Marion Knell)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부위를 만졌다고 말했다. 분개한 부모는 바로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 곳 현지 문화에서는 훈계하기 위해 이런 사적인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흔한 관례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부모가 왜 이 문제로 시끄럽게 떠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 분명히 그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도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해를 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하는 관점이 다르듯이, 문화마다 체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오직 부모만이 자녀를 훈계할 수 있으나, 다른 문화에서는 버릇없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훈계할 수 있다. 또 어떤 문화에서는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창피를 주거나, 밖에 나가 있도록 열외를 시킨다. 또 다른 곳에서는 거의 체벌을 안 한다. 비슷한 정도로 신체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에서도, 체벌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2007년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이 두 그룹에서 약 90%의 학생들이 신체적인 체벌을 경험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보다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받았다. 또, 미국 학생들의 경우 엉덩이나 손을 맞는데 비해, 일본 학생들은 얼굴이나 머리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체벌이 없는 가족이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누군가가 벌을 주었다는 것 자체에 기겁할 일이다. 비록 벌을 주는 가족이나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일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녀의 뺨을 때리거나 사적인 부위를 만지는 것을 안다면 아연질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주로 가사 도우미나 가까운 현지 이웃이나 같은 고국에서 온 국외 거주자와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가사 도우미

고국보다 임금이 훨씬 저렴한 사역지에서 선교사들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 또, 자녀를 돌보는 유모를 고용할 수 있다. 물론, 사역하는 사람들은 현지의 문화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유모를 고용할 때도 현지 문화의 혼계 방법이나 유모 가족의 체벌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더불어, 요리를 하거나 집안 청소, 또는 정원 손질을 위하여 고용된 현지인들도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들도 자녀들을 혼계할 수 있다. 특히 당신이 없을 때에도 그렇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자녀에게 각각의 문화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자녀를 제3문화자녀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당신은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책임이 있고, 자녀들이 현지인들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당신이 허락할 만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현지인을 고용 했고, 그들이 당신 집안이나 당신 주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지에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에도 당신과 배우자는 그런 혼육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현지 이웃들

(같은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복합주거’로 같이 살지 않고) 당신이 현지인들로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당신 자녀는 이웃에 사는 현지인 아이들과 같이 놀 것이며, 거기서 그들 부모나 친척들을 만날 것이다. 현지 어른들이 당신의 자녀를 혼계하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자녀들이 실제로 그들 집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혼계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은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으나 그들의 혼계에 대한 규범을 알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대화나 혼계할 때에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혼계의 영향력과 그들과 알고 지내는 유익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도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장난감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배우자는 이 부수어진 장난감이 아이에게 미치는 물질 만능주의의 나쁜 영향을 줄인다고 여길 수 있다.

가까운 국외이주자

고국에 있는 부모와 달리 현지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알고 지내는 고국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혼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이 (다른 국외 이주자로부터) 단절되어 살기도 한다. 사실 몇몇 사람들은 고국 사람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에 살기도 한다. 일부 부모들은 도시에 살면서 고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에서 왔으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만나기도 한다. ‘고향’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비록 같은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에게 문의하는 것은 역시 문화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더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여러 가족끼리 가까이 살면, 자녀들이 이집 저집 드나 들면서 놀 때, 배우자들 사이에서 혹은 같은 고국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녀 훈육 문제로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국외 이주자들과의 관계로 생긴 문제들과 선교 공동체의 사기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요인

다음은 자녀 훈육을 상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 자녀를 훈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없다. 자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된 후, 어른이 되어 사회의 일원이 된다.
- 부모는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결혼 전에 그러지 못했으면, 결혼 후 상담을 통해서라도 부부가 서로 동의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중심 가치를 가져야 한다.
- 자녀가 학대 받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간섭해라.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욕하거나 다른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문화에 살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하려고 한다.
- 자녀의 역할에 동의 하라. 자녀가 성숙해감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보는 당신의 시각을 개선하라. 자녀들도 당신과 함께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은 어릴 때는 이 역할을 즐길 수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억울해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는 당신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현지 언어로 노래하는 것을 ‘근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10대가 되면 이것을 경멸할 수도 있다. 자녀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라. 그러나 참여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창피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 당신은 자녀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라. 제3문화자녀(특히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문이 “당신이 자라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였다. 3분의 2가 그들의 부모를 지명 했는데 32%는 아버지를 28%는 부모 둘을 그리고 6%는 어머니를 지명했다. 다른 3분의 1은 기숙사 사감, 선생님, 형제자매, 친구 등을 지명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매로 부터 사랑까지의 다양한 훈계 방법을 말하고 있다. 항상 한가지 방법이 모든 자녀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자녀일지라도 훈계를 받지 않으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제사장 엘리와 아들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족을 심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자녀들의 잘못을 엘리가 알고 있었지만, ‘제어를 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삼상 3:13).
-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왕상 1:6) 라고 말한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